

‘상담’ 과 ‘충고’ 의 차이

정 주 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상담을 진행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상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순간은 내담 학생과 인사를 나누고 최초의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는 초반부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을 해야 할 글을 검토하는 시간보다 정작 이 몇 분간에 정신을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담자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쓰기교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대의 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글쓰기교실을 찾는 경우인 만큼, 내담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글에 대한 문제점을 듣는 일이다. 본인이 작성한 글의 문제점을 알고 싶어 찾아오는 것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막상 그 문제점을 잘 전달하고 또 의연하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가능한 한 내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명료하게 해당 글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상담의 초반부에 이루어진다. 내담자가 타인의 말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며, 반응하는지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그 판단에 따라 내담자의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도 조절해야 한다. 건조한 억양과 태도로 대해야 편하게 대화가 진행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심정적인 공감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는 유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상담자의 목적은 가능한 한 상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언제나 바라는 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난처한 상황을 두 가지 정도만 꼽아 보면, 우선은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본인이 쓴 글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거나,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부연설명을 덧붙이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다. 일단 상담 내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상담 내용을 무조건 수긍하면서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태도로 상담자의 말에 의존하려 들 때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호소할 뿐, 본인의 문제를 전적으로 상담자에게 맡기려 할 때 상담자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못 쓰겠다는 글을 대신 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실상 이 두 가지 상황은 내담자가 상담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는 상담 내용을 자신의 지적 수준에 대한 폼하기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후자는 자신의 문제를 방기하고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자는 대개 자신의 성과물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좀 더 문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기보다 다만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상담자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실상 하나뿐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평범한 원리 말이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경험할 때면,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담’이란 행위의 성격에 대해 새삼스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담’이란 분명 ‘일방적인 충고’와는 다를 것이다. ‘상담’이란 말 자체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란, 너무나 당연하게도,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고나 경험의 한계를 타인의 의견을 통해 보완하고자 고안된 형식이다. 그러므로 상담은 종적인 구도가 아니라 횡적인 구도에 의존하고 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담은 생산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 상담을 ‘일방적인 충고’로 생각해버리면, 상담자와 내담 학생은 지적인 종속구도에 묶이게 된다. 그러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영 자신감이 없어져서 무조건 도움만을 바라게도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글쓰기를 ‘충고’ 할 수 있을 만큼 글쓰기에 통달한 사람은 없다. 일차적인 직관과 달리 그 직관의 기록은 일정한 분석과 객관화, 즉 거리두기를 요구한다. 요컨대 글쓰기는 ‘나의 생각’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내가 생각한 것’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옮겨야만 완성이 된다. 일차적인 사유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상대화 작업을 지속하

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사유가 얼마나 치밀하고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글쓰기는 언제나 자기를 반성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학생이든 교수든, 글쓰기의 경험이 많은 적든, 누구나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지적 한계를 고민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공평하게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애초 글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일이 없다면 어려운 과제를 떠안을 필요도 없겠지만 말이다. 이렇듯 글쓰기가 자신의 지적 영역을 넓히는 과정의 연속이 되는 마당에서야, 글쓰기의 정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일방적으로 충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영역 안에서 만나는 한, 우리는 모두 진리를 찾아 각자 길을 나선 '학도(學徒)' 라는 동일한 심급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쓰기교실에서 수행하는 글쓰기 상담이란 어떤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을까. 상담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는 일이지, 어떤 결정적인 해답을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다. 글쓰기 상담실에서 상담자와 내담 학생은 적어도 글쓰기의 어려움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상황에서 만난다. 이때 상담자가 어떤 자격 내지 발언의 우선권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가 글쓰기를 정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글쓰기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글쓰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알고 그 어려움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상담을 통해 비로소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고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일방적인 충고' 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담' 을 하는 것으로 시선을 전환해서, 상담에서 생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내담자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 우선 자신의 글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추상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글에 대해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상대의 의견을 자신의 견해에 맞게 조정하여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상대가 좋은 방안을 내놓더라도 본인의 능력과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되 주체적으로 대응하라. 상담자로부터 자신의 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내담자의 참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



어야 한다. 그래야 상담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담은 상호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내담자 본인도 상담을 진행하는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수강의시리즈와 교수법 가이드

다양한 우수강의 사례를 발굴하여 좋은 강의의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강의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자의 교수(teaching)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 운영기술을 담은 '교수법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880-5387, <http://ctl.snu.ac.kr>)